

## 2017년 2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

일시 : 2017.2.24(금) 12:00~13:00

### ■ 주요 회의 내용

#### ▲ 보도의 균형과 심층성, 현장성 강화 등 제고

- 우리나라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을 감안할 때, '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' 뉴스는 판결내용과 원전 수명연장 반대 측 입장만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원전 전문가, 원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균형감 있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했음. 다음부터는 원자력 관련 뉴스를 전할 때 보다 균형 있는 편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(김상선 위원)
- 돌발영상 나오듯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내용을 다룬 산뜻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자주 나오지 않는 것 같음. 정기적으로 다뤄봤으면 좋을 것 같음(김용직 위원)
- 특검 관련해 연일 많은 일이 발생하는데 중간중간 정리해서 짚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. '북한은 오늘'이라는 프로그램이 탄핵정국 속에서 일시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데, 김정남 피살 사건 등을 이 프로그램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다뤄봤으면 함(이태식 위원장)
- 김정남 사건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현지 특파원이 "말레이시아에서 북한과 단교 가능성이 거론된다"고 전했는데 누가 얘기한 것인지, 출처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아쉬웠음(이태식 위원장)
- 얼마 전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측 대리인단 등의 발언이 시청자로서 볼 때 일부도를 넘어선 감이 있었음. 당시, 연합뉴스TV는 팩트 중심으로 균형감과 중립성을 지키며 보도하다보니 다소 밋밋하고 심층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음(박동민 위원)
- 타사에서는 김정남 피살 사건이 터지고 난 뒤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초기부터 기자연결하면서 적극 대응. 반면 연합뉴스TV는 현지 특파원의 리포트만 나와서 아쉬웠음. 현장감이 담길 수 있는 방송뉴스의 특성을 살려 대형사건의 경우 국내외 가릴 것 없이 현장에서 기자가 라이브로 전달해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(주철환 위원)
- 연합뉴스TV는 빠른 현장연결이 강점으로 보임. 다양한 현장을 영상으로 최대한 빨리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점이 연합뉴스TV 시청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생각됨(주철환 위원)
- AI 확산에 따른 계란 부족 사태 관련 보도 내용 중 모 대기업에서 직원들이 계란 한판씩 사오는 애사심 또는 해프닝과 같은 내용을 마치 계란을 매점매석하

고 중소기업권을 침해하는 기업으로 보도했는데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하지않았나 함(김용직 위원)

- '북한에서 김정남 사망 첫 보도'라는 자막이 나왔는데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'김철'이라고 밝히고 있지, '김정남'이라고 명시해 발표한 적이 없음. 정확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어보임(이태식 위원장)

#### ▲ 화면구성 및 자막, 외래어 등 개선필요

- 오래된 자료화면을 여전히 일부 사용하고 있음. 총리실이나 검찰청 건물 아니면 사람 걷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, 대통령 자료화면도 같은 영상이 반복되고 있음. 새로운 영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임. 대담 시작 후 자료화면이 나오는데 이 때 대담자 화면이 작아지고 자료화면이 2/3를 차지하곤 하는데, 대담자의 말보다는 화면의 시각적인 면이 강조되는 느낌이 듦. 앵커나 대담자가 말할 때 자료영상이 화면을 압도하지 않았으면 함(이태식 위원장)
- 뉴스전문채널은 시청자 제보가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데, 연합뉴스TV의 경우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됨. 시청자 제보를 유인할 수 있는 스팟영상 혹은 시청자 제보영상을 활용한 뉴스 꼭지 등 시청자들의 제보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고민됐으면 좋겠음(주철환 위원)
- 시청자들은 가족 나들이라든지 여러 활동 때문에 주말 날씨를 매우 궁금해 함. 평일에도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전하며 주말날씨를 표로 보여줬으면 좋겠음(박동민 위원)
- 화면에 등장하는 자막이 좌상단을 비롯해 하단, 그 밑에 스크롤 등 모두 세 가지가 있음. 때로 주요 뉴스 내용과 일부 자막의 내용이 맞지 않을 때가 있음. 시청자들에게 혼선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상황이 변하면 그에 맞춰 통일을 해줬으면 함(이태식 위원장)
- 지난 13일 오전 11시에 진행된 뉴스 특보에 대권주자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서 정의당 심상정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사진 밑에 이재명 성남시장 이름이 나오는 실수가 있었음. 실수를 한 후 정정보도도 없었음. 방송에서 실수가 있었을 경우 그 즉시나 이후 앵커 클로징 멘트 때 정정 필요(신현택 부위원장)
- 여전히 자막에 한자어가 남발되는 경향이 많음. 자막의 한계 때문으로 생각되지만 되도록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(주철환 위원)

#### ▲ 프로그램 기획, 제작 관련 의견

- 뉴스전문채널에서도 종편들처럼 스타 앵커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듦.
-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부각해서 강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음(박동민 위원)
- 요즘, 외국에서도 국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음. 대통령 탄핵이나 김정남 관련 내용이 연일 다뤄지고 있는 것임. 외국에서 우리의 이런 주요 이슈를 어떤 형

태로 다루거나 보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함  
(박정숙 위원)

- 대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포커스 할 수 있는 간판 프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음(박정숙 위원)
- 내일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4년이 되는데 지난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 여기 까지 왔는지, 그 흐름과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면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 번 리뷰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(이태식 위원장)
- 전체적인 뉴스편성에서 정치뉴스의 비중이 높은 반면 문화관련 뉴스의 비중이 좀 적어보임. 도서나 영화, 연예 등에 집중돼 있는데 좀 더 다양한 소재의 문화 관련 뉴스들을 전달해줬으면 좋겠음(주철환 위원)
- 연합뉴스TV는 주로 스트레이트성 발생 뉴스 중심으로 리포트 하고 있음. 그날 일어난 일을 언제 들어가 보더라도 확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좋게 보고 있음. 그런데 뉴스 리포트에 관련 당사자나 전문가 등의 싱크가 많이 보이지 않고 텍스트만 있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(이재경 위원)
- VR이나 AR 등 시각적 다양한 효과를 활용한 뉴스 제작도 검토할 만 하다고 여겨짐. 딱딱한 뉴스의 틀을 다소 벗어나서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어들이 수 있을 것임(주철환 위원)
- 최근 급변하는 북한 동향을 볼 때 <북한 오늘은> 프로그램의 고정(확대)편성이 필요해 보임(주철환 위원)

#### ▲ 앵커, 동시통역 및 기타의견

- 낮 '뉴스현장' 프로그램과 저녁 '뉴스리뷰' 프로그램에서 저녁뉴스에서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앵커도 전달을 잘 하는 인상을 받음. 저녁 뉴스 시간에는 리포트의 앵커 멘트를 남녀 앵커가 나눠서 하지 않고 한 앵커가 모두 처리하는 모습이 좋았음. 반면 낮 뉴스는 앵커 두 분이 앵커 멘트를 한 문장씩 나눠서 전하고 있는데 이때 방송하지 않는 다른 한분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 보임. 보다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함(이태식 위원장)
- 최근 새로운 뉴스앵커가 투입이 되어 일부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바뀌었음. 앵커 소개를 해준다면 특정시간대의 앵커에 대한 팬도 생길 수 있고 채널 충성도도 높일 수 있음(박정숙 위원)
- 말레이시아 경찰의 김정남 암살사건 첫 기자회견 때 동시통역 없이 영어와 자막만 나와서 시청하기 불편했음. 반면 타사에서는 동시통역을 함께 해줘서 시청자들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았을까 생각됨. 다행히 그 다음날 바로 강철 말레이시아 대사 회견에서는 동시통역이 나왔음. 시청자들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보임(주철환 위원)
- 따듯한 뉴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주길 바람.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발달장애인 스포츠 관련 시범사업으로 생생생활체육센터를 열었는데 관련 내용을 연합

뉴스TV에서 한쪽으로 다뤄 좋았음(김용직 위원)

- . (끝)